

측정도구의 개발과 활용 ⑧

지난 호에서 타당도가 무엇이고 이것을 어떻게 분석하는지에 대해 이론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실천현장에서 타당도를 검토하는 구체적 방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일단 타당도를 분석하는 방법은 지난 호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크게 두 가지이다(자세한 내용은 지난 호를 참조하기를 바란다).

내용이 부합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안면타당도 분석을 위해 확인하기 좋은 질문이다.

만약 '아니오'의 의견이 많이 나온 문항이 있다면 그 문항은 제거해야 한다. 2번 질문은 내용타당도를 확인하기에 좋은 질문이다. 여기서 개념A,B,C는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구성개념)의 하위개념으로서 이것

측정도구 타당도 분석하기

사람의 판단에 의지하는 방법

동료, 자원봉사자, 클라이언트, 지역주민 등의 일반인에게 문항의 내용을 검토받는 안면타당도 방법과 박사급의 전문가에게 검토받는 받는 내용타당도 방법은 실제 분석 절차가 비슷하며, 또한 매우 쉽다. 흔히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때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타당도 확인에 대한 증거자료를 마련하지 못하고, 그냥 말로만 확인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 E) 측정도구가 내용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 좀 해주세요"라고 묻고, "(전문가 D)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라는 응답만 듣고 보고서에 내용타당도를 검토했다고 쓰는 경우다. 이보다는 <서식 1>을 활용하라고 권장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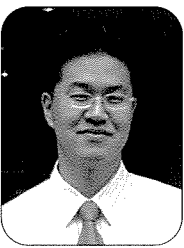
<서식 1>의 1번 질문은 설문목적과 문항

을 위의 서식에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만약 설문지 개발자가 생각했던 개념하고, 전문가가 선택한 개념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 문항은 내용타당도가 낮은 문항이 된다. 혹은 여러 명의 전문가가 판단한 결과가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도 그 문항을 제거해야 한다.

참고로 전문가는 대학교수, 박사과정 이상 전문가, 혹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소유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이 적절하다. 정리하면 일반인에게는 1번 질문을, 전문가에게는 1번과 2번 질문 모두를 제시하는 것이 좋다.

통계를 사용하는 방법

타당도를 통계를 이용해서 분석할 때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상관계수'를



조성우

(사회복지사, 성균관대 박사수료, congruence@hanmail.net)
 (전) 충청복지관 사회복지사 근무
 (현) 성균관대 박사수료, 성균관대/서울신학대 강사
 연구 : 이혼가정자녀의 행동적응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요인과 아동의 이혼지각 분석, 청소년 자원봉사만족도 척도개발 등
 저서 : 사회복지실천과 척도개발(학지사), 사회복지조사연습(정목출판사) 등



측정도구에 대한 타당도검토 의뢰서

다음 문항을 읽고 내용적으로 타당한지를 검토(체크)해 주십시오.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 (구성개념)		
문 항	1. 내용이 적절합니까?	2. 각 문항은 다음 중 어떤 개념을 측정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예 □아니오	□개념A □개념B □개념C
2.	예 □아니오	□개념A □개념B □개념C
3.	예 □아니오	□개념A □개념B □개념C
4.	예 □아니오	□개념A □개념B □개념C
5.	예 □아니오	□개념A □개념B □개념C
전반적 의견/ 이외에 문항에서 누락된 중요 내용이 있습니까?		

이상과 같이 내용타당도를 확인하였습니다.

2006년 월 일

이름: (인)

〈서식 1〉 측정도구에 대한 타당도 검토 의뢰서


이용하는 것이다(SPSS로 상관계수를 구하는 방법은 12월호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상관계수라는 것은 두 변수(혹은 측정도구)가 서로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가를 알려주는 값으로서 0.0~1.0사이의 값을 가진다. 보통 0.3이상이면 상관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을 이용해서 내가 만든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분석하고 싶으면 다음의 순서대로 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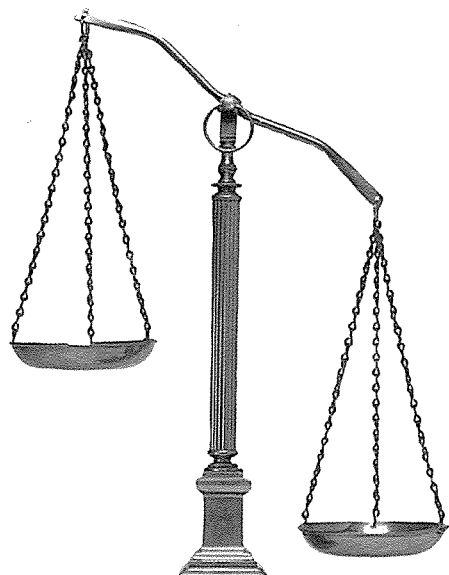
- 1) 동일한 사람들(이왕이면 30명 이상)에게 내가 만든 측정도구(예:결혼생활만족도)로 질문하고, 또한 이것과 내용적으로 관련 있는 객관적 측정값(예:지난 1개월 동안 부부싸움 횟수)을 구한다.

- 2) 그 다음 내가 만든 측정도구의 문항들을 모두 합산해서 총점을 구한다.
- 3) 이렇게 구한 총점과 객관적 측정값 간의 상관계수를 구한다.
- 4) 상관계수가 0.30 이상이면 타당도에 문제없다고 보고하며, 이 때 타당도 계수는 0.30이다.

이상의 절차가 바로 '준거타당도' 분석 방법이다. 만약 1)에서 객관적 측정값을 사용하지 않고 기존의 타당화된 척도(예:가족관계척도-양옥경·이민영, 2003)를 사용해서 조사를 한 후, 문항들의 총점을 구해서 원래 내가 만든 도구의 총점간의 상관계수를 구할 수도 있다. 물론 상관계수 해석방법은

똑같다. 이러한 방법을 '구성타당도 분석방법'이라 한다.

통계를 이용한 타당도 분석 방법은 이렇듯 상관계수를 이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분석하는 방법은 한가지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고, 가능한 여러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하는 것이 좋다. 



지금까지 총 8회에 걸쳐 측정도구 개발과 활용에 관한 설명을 했다. 이제부터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서비스 효과성 평가에 필요한 측정도구를 직접 개발해보자. 문항이 많을수록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측정도구라도 신뢰도와 타당도에서 검증받으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

그동안 소개한 방법과 규칙을 잘 따르면 누구든 어렵지 않게 측정도구를 개발할 수 있다. 만약 개발하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언제든지 저자에게 문의하기 바란다.

저자도 독자와 함께 서로 도우며 노력할 것이다.